

纖維工業의 特性과 消費 構造變化

金 榮 奉

目 次

- I. 序 論
- II. 우리나라 纖維工業의 要素集約度 및 競爭環境
- III. 世界 纖維消費構造와 展望
- IV. 纖維工業의 成長展望
- V. 結論 및 政策方向

I. 序 論

纖維工業은 일반적으로 勞動集約的 性格이 현저한 衣類生産部門으로 알려져왔다. 과거에 纖維工業의 國際競爭力은 대체로 各國의 勞動生産性和 賃金水準에 의하여 評價되었으며 주로 衣類用 纖維消費量이 世界의 纖維需給規模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世界의 纖維産業은 合成纖維의 消費比重이 증대함에 따라 生産方法和 消費構造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

다. 天然纖維의 供給이 자연적으로 制限된 데 대하여 合成纖維는 生産技術의 開發과 製品改善이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纖維部門의 需給創出과 資本集約化를 主導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纖維工業 概念이 변화됨에 따라 世界市場에서의 産業展望과 競爭力條件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輸出主導産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纖維工業은 최근에 勞動力不足과 賃金上昇을 위시한 몇 가지 産業環境의 變化를 맞이하여 向後의 工業進路를 결정하여야 하는 岐路點에 위치하게 되었다. 惡化될 것이 예상되는 對內外 産業環境變化를 보면 불리해지는 勞動生産要素條件 이외에 우리나라가 世界的인 纖維貿易國으로 浮上함에 따라 증가되는 外國의 牽制와 輸入規制, 競爭國의 施設 擴大와 특히 中共의 擡頭에 의하여 激化될 것으로 보여지는 市場競爭 등이 있다. 반면 施設近代化和 技術蓄積으로 향상되는 生産性,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國內纖維消費 등은 앞으로 상당 期間 동안 우리나라 纖維工業展望을 밝게 해주는 要

인이 된다고 하겠다.

本稿은 이와 같은 纖維工業의 특성과 環境變化過程에서 우리나라 纖維工業의 成長方向을 摸索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今後의 産業展望은 國際競爭力 狀態와 需要展望에 의존할 것인데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纖維工業의 國際競爭力 現況과 要因分析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纖維工業의 要素集約도와 市場與件의 變化推移를 分析함으로써 우리나라 纖維工業의 國際競爭力 評價要因이 달라지는 과정을 관찰하고 國內外 纖維消費展望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纖維工業의 將來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纖維工業의 要素集約度 및 競爭環境

과거에 우리나라 纖維工業 成長은 勞動集約的 製品의 輸出에 크게 의존하였다. 1960年代 이래 成長推移를 보면 低廉한 勞動力과 老朽 施設을 활용하여 衣類, 織物 등의 輸出이 증대됨으로써 纖維工業의 量的 成長基盤이 이루어졌고 原資材 및 中間材의 國內供給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化學纖維施設의 擴大와 綿紡, 毛紡 및 織物製造業에서의 施設近代화가 추진되었다. 1977年度 우리나라의 纖維需給量中 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은 60%에 이르고 최근 原料 및 紡績糸의 輸出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輸出量中 이의 比重은 아직 24%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賃金上昇과 勞動力 不

1) 纖維原料에는 綿, 毛, 生糸 등 自然纖維와 長·短纖維(filament staple fiber) 形態의 化學纖維가 포함된다. 그리고 糸(yarn) 形態의 純綿糸, 純毛糸, 스프糸, 混紡糸 등은 織物(fabric)과 함께 中間材에 속한다.

足現象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低廉한 勞動力에 의한 國際競爭力의 優位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纖維工業에서 要素配合와 技術集約도가 다른 纖維生産部門이 더욱 有機的으로 연관되게 되어 均衡된 纖維工業成長을 위해서는 상당한 投資와 技術水準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 아래서 우리나라의 纖維工業은 앞으로 그 要素集約度, 競爭環境 및 技術 등의 변화에 의하여 部門別 國際競爭力 評價가 달리 될 것이다.

1. 資本集約度

일반적으로 纖維工業의 범위에는 纖維原料와 中間材를 生産하는 纖維製造業¹⁾과 衣類製造業이 포함된다. 衣類製造業은 勞動集約的의 성격이 현저하나 纖維製造業에는 要素集約도가 다른 化學纖維, 紡績糸 加工部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生産構造에 따라 經濟的 特性이 다르게 나타난다. 裝置産業인 化學纖維工業은 높은 固定投資와 技術水準을 요하는 分野이며 紡績業, 織物製造業 및 加工業은 生産要素의 相對價格에 따라 施設의 自動化를 채택할 수 있는 부문이다.

1974年度 日本製造業의 勞動裝備額을 보면 化學纖維製造業은 5,126千円으로서 製造業平均 4,957千円을 上廻하며 綿紡績 및 毛紡績業은 각각 2,019千円과 1,337千円으로서 製造業平均値에 크게 미달하였다(日本銀行, 1975).

최근 5年間 우리나라 纖維工業의 1人當 設備裝備額推移를 보면 化學纖維製造業과 綿紡績業이 계속 製造業平均水準을 上廻하였고, 毛紡績業은 1972년에는 他産業에 비하여 높은 勞動裝備率을 나타내었으나 그 후 相對的인 減少

趨勢를 보였다. 衣類製造業의 勞動裝備率은 製造業平均의 1/3~1/5에 불과하였으나 纖維製造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우리나라 産業中 비교적 높은 資本設備를 요하는 産業으로 나타났다.

지난 3次 5個年計劃 期間中 重化學工業建設에 의하여 우리나라 製造業의 平均勞動裝備率이 상당히上昇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纖維工業의 勞動裝備率 增加率이 오히려 製造業의 平均增加率보다 높았던 것은 매우 괄목할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纖維製造業의 資本集約化과정은 化學纖維의 生産比重 증대와 함께 各纖維製造業部門의 資本深化로써 설명된다. 1972~77年間 製造業의 1人當資本設備額이 經常價格으로 2.1배 증가한 데 대하여 綿紡績業은 4.1배, 化學纖維製造業은 2.5배, 그리고 染色加工業은 2.8배 上昇하였다. 그 결과 同期間동안 纖維製造業의 勞動裝備率은 2.2배 上昇하였으며 1977年度 化學纖維 및 綿紡績業의 勞動裝備率은 각각 製造業의 1.9배와 2.3배에 해당하는 5,566千원과 6,510千원으로 上昇하였다. 또한 纖維工業의 資本集約化 趨勢에 따라 生産原價에서 占有하는 人件費의 比重은 낮아지는 趨勢에 있다. 衣類와 靴類를 포함하

는 纖維工業의 製造原價中 勞務費比重은 1972年의 10.0%에서 1976년에 8.4%로 下落하였으며 綿紡績業의 경우 11.1%에서 8.6%로, 그리고 化學纖維製造業은 11.6%에서 6.4%로 下落하였다(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77).

이와 같이 纖維原資材 및 中間材製造部門, 특히 化學纖維生産部門에 있어서 勞動生産要素의 比重은 漸減하고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와 日本과의 勞動裝備率 隔差가 顯著함에 비추어 앞으로도 상당히 要素集約度의 變化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 部門의 競爭力向上에는 設備近代化와 生産技術向上이 보다 重要하게 作用할 것으로 보여진다.

2. 技術動向

1950年代 초반 衣類革命이라 할 수 있는 化學纖維의 출현은 纖維工業의 生産 및 消費構造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향후 이와 같은 급격한 技術變化는 豫見되지 않으나 技術進歩는 앞으로도 各國의 競爭條件과 需要展望을 변화시키는 重要한 要因으로 등장할 것이다. 纖維工業은 加工段階가 복잡다양하여 포괄적으로 技術開發方向을 설명하기 곤란하나 현재 先進

〈表 1〉 纖維工業의 勞動裝備率

(단위: 千원)

	1972 (A)	1974	1976	1977 (B)	B/A
製造業	1,378	1,865	2,461	2,878	2.09
纖維製造業 (衣類除外)	1,470	1,954	3,408	3,300	2.24
化 纖	2,244	2,804	5,728	5,566	2.50
綿 紡	1,577	2,768	5,167	6,510	4.13
毛 紡	1,473	1,137	2,082	2,333	1.58
生 糸	894	1,453	1,077	1,166	1.30
織 物	799	1,602	1,136	1,822	2.28
染色加工	791	1,214	2,293	2,205	2.79
編 織	728	709	935	843	1.16
衣類製造業	262	424	538	819	3.13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74~78.

工業國에서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技術變化 內容은 工程의 短縮과 連續化, 自動制御機器 사용에 의한 에너지 및 資源節約, 컴퓨터를 이용한 商品企劃, 勞動力의 技能低下에 對備한 自動機器開發, 新素材開發 및 品質改善 등 주로 勞動力不足에 대한 對備와 獨自의인 需要開發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各部門의 技術開發 現況과 方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化學纖維部門에 있어서 今世紀에 나일론, 폴리에스터 및 아크릴에 比肩할 수 있는 汎用性의 새로운 化纖은 출현하기 어려우나 異形斷面, 超高強力, 制電性, 耐熱性, 非알레르기性, 導光性, 分散可染性 등 性能의 賦與를 위한 技術開發이 추진되어 衣類用 이외에도 家庭用 및 産業用分野에서 化纖의 需要伸張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化纖工業의 生産性向上을 위한 技術開發側面에 있어서는 종래의 重合→紡糸→延伸, 撚糸→假撚의 工程을 單一工程으로 단축하는 省工程化가 가장 당면한 課題인데 70年代에 들어 활발한 技術開發과 實用化가 추진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완성될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에너지 價格上昇과 勞動力不足에 대비하여 省力化를 위한 研究開發이 크게 增大될 것이 예상되는데 멀지 않아 無人工場에 가까운 工場, 즉, 현재 化纖工場 所要人員의 20%정도면 操業이 가능한 工場의 출현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진다.

紡績部門에서는 勞賃을 위시한 生産要素의 價格上昇에 따른 採算性低下가 최대의 當面問題로 技術開發方向도 이의 해결을 위한 各工程의 高速化 및 自動化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1960年代 中盤에는 「링」紡績法에 대신한 OES紡績法(Open End Spinning System)의 실용화에 성공하여 從前과 전혀 다른 새로

운 原理의 紡績法이 등장하게 되었다. 앞으로 「링」紡績法의 高速化 限界性에 따른 第二의 新紡績法이 研究開發되어 이 部門의 生産性 向上은 계속될 것이 展望된다.

製織技術의 開發은 과거에 織機가 主體가 되어 왔으며 今後에도 이와 비슷한 樣相을 보여 生産성이 높고 汎用的이며 品質의 高級化와 省力化를 촉진하는 織機開發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最近의 織機開發은 省力化 및 高速化를 목적으로 하는 Shuttles織機, Griper織機, Rapier織機, Jetloom 등이 主流를 이루고 操業管理를 위한 觀測制度(monitoring system)가 開發될 것이 예상된다.

染色加工部門은 纖維製品製造工程의 必須工程인 동시에 附加價值提高에 가장 크게 寄與할 것이 기대되는 分野로서 規模의 擴大, 少品種 生産方式의 合理化 및 省力化에 의하여 生産原價節減을 추진하고 있다. 이 部門에서는 衣類의 「패션」産業化 傾向에 따라 量產方式으로부터 多品種 少量生産體制로의 轉換對策이 필요하게 되고 皮膚公害, 廢水處理 등 各種公害에 대한 對策이 當面課題로 등장한다. 今後 技術的인 側面에서는 溶劑加工法이 開發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 加工法은 公害防止 및 資源節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氣相染色法이 研究·開發되고 복잡한 染色工場의 各種業務에 컴퓨터 導入이 불가피할 것이 예상된다.

編織 및 衣類製造部門은 현재 가장 勞動集約的 生産方法이 채택되고 있는 부문으로서 當分간은 資本에 의한 勞動力代替에 限界性을 가지고 있으나 長期的으로는 自動機器開發과 컴퓨터活用に 의하여 상당히 勞動力節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編織部門은 최근 10년

間 그 需要가 급속히 伸張하였으며 앞으로도 編織製品이 因習的 固定觀念을 벗어나 새로운 감각을 부여하고 伸縮性 및 快適한 着用感 등 消費技術的 性能을 갖추고 있으며, 準備工程이 필요없고 組織이 다양하여 生産技術面에서 織物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需要伸張과 技術開發이 계속 推進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종래의 製編原理에 基本的인 변화는 없을 것이 예상되는 반면 컴퓨터 使用에 의한 「디자인·시스템」開發, 電子裝置에 의한 自動選針 機具開發, 高速化推進, 原糸의 可編性 限界에 따른 多能機, 또는 特殊專用機 開發과 成型編織機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 生産性向上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衣類製造部門에서는 汎用性機械의 擴大와 自動化가 가장 당면한 研究課題가 될 것이며, 이밖에 物品取扱技術開發, 搬送 및 工程管理의 시스템化에 技術開發의 力點이 주어질 것인데 長期的으로는 無人化縫製시스템의 開發活用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競爭國 및 輸出市場

纖維工業의 要素集約도와 技術水準의 變化와 더불어 海外市場에서의 우리나라 製品의 競爭環境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먼저 競爭國의 現況을 살펴보기 위하여 世界的 纖維工業國을 分類하여 보면 그 發展水準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國家群은 美國, 英國, 프랑스, 西獨, 이탈리아, 日本 등 先進工業國으로 日本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全體纖維需給에 있어서 均衡을 유지한다. 이 國家群의 需給構造를 보면 纖維原資材 및 中間材가 大量生産, 輸出되고

있으며 完製品은 高級品을 제외하고는 斜陽化, 輸入되고 있다. 따라서 生産業界도 施設擴張보다는 施設自動化 및 製品高級화와 新製品開發에 注力하고 있다.

둘째 國家群은 韓國, 臺灣, 香港 등 輸出主導型 纖維工業國으로서 大衆品을 量産·輸出하고 있으며 全般的으로 현재 가장 강력한 國際競爭力을 保有한다고 평가된다. 生産施設은 특히 中間材部門에서 계속 擴大되고 있으며 後發纖維國과의 市場競爭을 의식하여 施設 및 技術向上이 활발히 推進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中共, 泰國, 印度,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 開發途上國은 內需 위주의 單純加工生産構造를 가지고 完製品部門에서 一部國家는 自給自足を 실현하고, 一部는 輸入에 의존한다. 이 國家群은 대체로 1,2次纖維製品 生産施設이 부족하여 生産施設의 量的 擴大와 施設均衡이 우선 解決해야 할 課題로 등장한다.

1960年代 이래 韓國, 臺灣 등 先進開發途上國의 國際競爭力은 괄목할 向上을 보여 世界貿易을 主導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先進纖維工業國에서는 輸入規制를 통해 自國市場을 確保하는 한편 競爭力 維持를 위한 生産技術革新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또한 1,2次製品分野에서 1人當 資本裝備率이 증가하고 國際競爭力 評價에 있어서 勞動生産要素의 重要性이 漸減하는 趨勢에 있으므로 적어도 이 分野에서 先·後進國間의 産業移轉은 전보다 어렵게 되어간다고 보여진다. 한편 勞動集約的인 完製品分野에서는 先·中·後進國間의 賃金隔差가 현저하므로 後進國에 의한 世界市場의 잠식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世界纖維工業現況에 비추어 完製

品製造部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國際競爭力向上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中間材製造部門은 資本懷妊 및 技術習得期間이 상당히 필요하므로 中共, 印度 등 後進國의 위협은 당분간 없을 것이며, 先進國과의 生産技術 隔差를 어느 정도 效果的으로 해소하느냐가 競爭力向上의 尺度가 된다. 따라서 이 部門은 纖維工業先進國에서 斜陽化 趨勢에 있음에 비하여 아직까지 韓國에서는 主力企業이므로 施設 近代化, 技術開發, 市場活動 등에 集約的 努力을 기울일 수 있어 競爭力向上을 통한 市場 擴大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輸出市場與件은 1974年の 資源波動 이후 美國 및 西歐諸國의 輸入規制 實施와 中共 등 競爭國家의 擡頭로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최근의 輸出實績이 이와 같은 環境變化를 눈에 띄게 反映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纖維工業이 生産性向上과 아울러 強化된 市場開拓努力과 「쿼터」地域에서의 輸出商品多樣化가 이루어진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쿼터」實施 및 資源波動 이후 1975~77 期間 동안의 우리나라 纖維輸出市場構造는

〈表 2〉 地域別 纖維輸出實績

(단위: 百萬弗)

	1975	1976	年平均增加率
쿼터地域	1,012(54.1)	1,766(54.4)	32.1
美國	495(26.5)	968(29.8)	39.8
카나다	76(4.0)	110(3.4)	20.4
EEC	408(21.8)	631(19.4)	24.4
스웨덴	33(1.8)	57(1.8)	30.8
非쿼터地域	858(45.9)	1480(45.4)	31.4
日本	465(24.9)	684(21.0)	21.3
其他	393(21.0)	796(24.5)	42.3
合計	1,870(100.0)	3,246(100.0)	31.8

註: ()안은 構成比임.
資料: 纖維産業研究所, 『纖維工業統計』, 1978.

〈表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豫想과는 달리 「쿼터」地域에서의 輸出比重은 下落하지 않았으며 이 地域에의 輸出增加率은 오히려 全體纖維輸出增加率을 上廻하였다. 그러나 美國을 제외한 全「쿼터」地域에서 輸出增加率 및 比重의 減少를 나타내어 先進纖維輸入國의 輸入規制措置에 의하여 우리나라 輸出市場의 成長이 상당히 制限되었음을 보여준다. 1974年 이후 增大되는 傾向을 보였던 輸入規制趨勢는 최근에 대체로 잠잠해졌으며 가까운 장래에 더욱 擴大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輸入規制가 주로 完製品과 織物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므로 輸出商品構造를 轉換하는 것이 궁극적 對備策이 될 것이다.

日本을 제외한 非「쿼터」地域의 輸出은 주로 中東輸出景氣에 힘입어 크게 增大하였으며 이 地域에 대한 輸出比重은 21.0%에서 24.5%로 上昇하였다. 對日本 輸出比重은 1975年 24.9%에서 1977年 21.1%로 下落하였는데 이것은 日本市場이 中共에 의하여 浸蝕당한 데 크게 基因한다고 보여진다. 中共輸出의 日本市場占有率은 纖維製品의 경우 1976年 9.8%

〈表 3〉 主要纖維類의 輸入規制內容

	品 目	年平均「쿼터」增加率(%)	年 度
美 國	綿·人造糸 및 織物	6.6	74~77
	綿·人造衣類	6.6	"
	毛製品	1	"
E C	綿·人造糸 및 織物	6.9	76~77
	衣類	6.9	"
카나다	폴리에스터 및 毛織物	0	"
노르웨이	織物 및 纖維製品	10	"
오스트리아	綿製品	10	"
스웨덴	合纖 및 셔츠	7	"
	衣類	0	"

資料: 商工部

에서 1977年 10.6%로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 製品의 比率은 40.1%에서 37.9%로 낮아졌다(海外經濟研究所, 1978). 금년 들어 中共은 日本과 長期貿易協定과 平和條約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는 相互貿易 增大에 더욱 관심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어 中共纖維에 의한 日本市場의 잠식은 불가피할 것으로 展望된다.

中共이 本格的으로 經濟開放化와 工業化를 추진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日本은 물론 全世界의 輸出市場이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텍스타일 올가논」(Textile Organon, 1978)의 發表資料에 의하면 中共의 化纖生産은 1977年 18萬톤에서 1979年 30萬톤 이상으로 增大될 전망이다. 이것은 1976년의 우리나라 化纖生産規模에 近接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中共은 1976年 한해에 年産 30萬톤 規模의 폴리에스터 및 나일론 纖維施設導入契約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積極的으로 工業生産能力을 增大시킬 것이 예상되어 化纖生産能力 增大趨勢는 매우 급격할 것으로 展望된다(海外經濟研究所, 1987).

中共은 國內需要規模가 거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國內需要를 초과하는 供給能力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工業化推進에 소요되는 막대한 外貨財源을 勞動集約分野의 纖維輸出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中低級纖維製品部門은 가장 먼저 打擊을 받을 것이며 技術的 經濟的 特殊性으로 상당한 追擊期間을 필요로 하는 化纖生産部門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纖維工業部門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勞動集約部門에서의 品質高級化와 原資材 및 中間材 위주로의 生産構造改編이 市場與件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纖維工

業의 課題가 될 것이다.

Ⅲ. 世界 纖維消費構造와 展望

化學纖維가 출현한 이래 世界纖維消費構造上 두드러진 변화는 化學纖維消費의 擴大와 非衣類用纖維消費의 擴大라고 할 수 있다. 20餘年間化纖代替現象의 逆流로서 최근 一部 先進國에서 天然纖維消費가 증대하는 경향도 보여 주었는데 天然纖維의 生産制限性으로 보아 長期的으로 化學纖維에 의한 代替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끊임 없는 技術開發에 의하여 化學纖維의 生産原價는 낮아지고 天然纖維와의 性質差異가 없어짐으로써 世界的으로 衣類用消費는 擴大되고 非衣類用部門에서도 需要가 創出되고 있는 것이다.

世界纖維消費展望은 우리나라와 같이 輸出用 纖維生産比率이 높은 나라에서 絶對的 重要性을 가진다. 以下에서는 世界纖維의 素材別 用途別 消費構造 變化推移와 전망을 통하여 市場規模面에서 우리나라의 纖維工業成長性을 評價하여 보기로 한다.

1. 世界纖維消費構造

20世紀 後盤에 들어 世界의 纖維消費量은 化學纖維의 출현에 의한 供給增大와 價格下落으로 持續的인 증대를 보였다. 1950~76 期間中 總消費量은 940萬톤에서 2,557萬톤으로 약 2.7倍 增大하였는데 특히 化學纖維의 보급이 시작된 1950年代 初盤에 消費增加趨勢가 급격하였다. 1970年 이래 世界纖維消費는 年平均 3

%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人造纖維(化學纖維)는 年平均 6.4%로 증가하여 全體纖維消費增加率의 2배 이상을 나타내었다.

供給側面에서 觀察하면 1971~77年期間동안 世界의 纖維生産은 24百萬톤에서 28百萬톤으로 平均 2.8%가 증대하였다. 同期間동안 衣類의 化纖代替現象과 家庭用 및 工業用 需要增大를 反映하여 纖維生産增大는 거의 대부분 合纖部門에서 발생하였고 綿, 毛, 絹 등 天然纖維는 95萬톤 증대에 그쳤으며 「레이온」, 「아세테이트」 등 「셀룰로오스」 纖維(其他 化學纖維)는 오히려 20萬톤이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世界纖維生産中 化學纖維의 비중은 38%에서 44%로 提高되었고 특히 非「셀룰로오스」系 合成纖維의 비중은 24%에서 32%로 上昇

하였다. 이와 같은 纖維生産 增大 및 合纖代替 趨勢는 今後 石油價格의 급격한 上昇이 없는 한 人口 및 所得增大와 纖維用途의 多樣化에 따른 消費增大에 힘입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世界纖維工業界의 공통된 의견이다.

開發途上國에서의 纖維消費增加要因은 대체로 人口 및 所得增加이나 高所得國에서는 家庭用 및 産業用的 需要增大가 중요한 要因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纖維의 家庭用 用途는 「카펫」 및 室內裝飾에 국한되나 産業用 用途는 「타이어코드」를 위시하여 漁網, 「로프」, 「벨트」, 重厚織布, 包裝, 電氣材料 등 다양하며 性能提高 및 原價下落到에 따라 金屬, 非金屬 및 「플라스틱」 製品의 代替가 계속되고 있다.

〈表 4〉 世界의 纖維消費量

(단위 : 1,000%)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76
綿	6,647	9,492	10,113	11,605	11,686	11,863	12,502
毛	1,057	1,265	1,463	1,493	1,602	1,514	1,209
絹	19	29	31	33	41	20	49
化纖	69	266	702	1,976	4,701	7,363	8,598
合纖							
其他	1,612	2,278	2,608	3,338	8,132	2,965	3,212
計	1,681	2,545	3,313	5,314	8,132	10,328	11,810
合 計	9,404	13,331	14,916	18,445	21,461	23,725	25,570

資料 : Textile Organon, 1977.

〈表 5〉 世界의 纖維生産推移

(단위 : 1,000%)

	1971	1975	1971	1977	1971~77 年平均增加率
綿	13,019	11,819	12,643	14,151	1.4
毛	1,567	1,505	1,463	1,391	△2.0
絹	41	47	48	49	3.0
天 然 計	14,627 (62)	13,372 (56)	14,154 (55)	15,591 (56)	1.1
合 纖	5,614	7,354	8,583	9,052	8.3
再生 및 半合纖	3,458	2,962	3,214	3,257	△1.0
化 纖 計	9,072 (38)	10,316 (44)	11,797 (45)	12,309 (44)	5.2
全 體	23,700(100)	23,687(100)	25,951(100)	27,900(100)	2.8

資料 : Textile Organon, 1977.

衣類用 이외의 纖維需要는 이제까지 纖維工業研究에서 무시되어온 부분이다. 그러나 美國 및 西歐一部地域에서는 非衣類用 纖維消費量이 衣類用 消費量을 초과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非衣類用 需要가 거의 무시될 정도인 後進國에서 所得增加와 産業化에 의하여 이 部

門消費가 增大함에 따라 世界纖維市場에서의 家庭用 및 産業用 纖維需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된다. 統計資料의 부족으로 所得水準이 다른 國家間 用途別 消費構造를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나 美國 및 西歐의 消費構造變化推移를 보면 적어도 非衣類用 纖維消費

〈表 6〉 美國의 用途別 纖維需要推移

(단위 : 1,000%)

	化學纖維		天然纖維(綿, 毛)		計	
	1971	1976	1971	1976	1971	1976
衣類用	1,210 (42.1)	1,400 (39.4)	915 (50.0)	841 (54.4)	2,126 (45.2)	2,241 (43.9)
家庭用	919 (32.0)	1,166 (32.8)	597 (32.6)	442 (28.6)	1,515 (32.2)	1,608 (31.5)
(카페트)	599 (20.9)	795 (22.4)	71 (3.9)	13 (0.8)	670 (14.2)	808 (15.8)
産業用	743 (25.9)	988 (27.8)	320 (17.5)	262 (17.0)	1,061 (22.6)	1,251 (24.5)
(타이어)	283 (9.9)	259 (7.3)	—	—	283 (6.0)	259 (5.1)
計	2,871 (100.0)	3,555 (100.0)	1,831 (100.0)	1,545 (100.0)	4,702 (100.0)	5,100 (100.0)

註: 1) () 안은 構成比.

2) Glass Fiber 除外.

資料: 化纖協會, 『化纖便覽』, 1978.

〈表 7〉 西歐의 用途別 纖維需要推移

(단위 : 1,000%)

	化學纖維		天然纖維(綿, 毛)		計	
	1971	1976	1971	1976	1971	1976
衣類用	1,050 (54)	965 (50)	768 (52)	659 (51)	1,819 (53.6)	1,625 (50.8)
家庭用	545 (28)	640 (33)	478 (33)	435 (34)	1,024 (30)	1,074 (34)
(카페트)	226 (12)	305 (16)	108 (7)	89 (7)	370 (11)	393 (12)
産業用	334 (17)	306 (16)	216 (15)	196 (15)	551 (16)	502 (16)
(타이어)	128 (7)	93 (5)	7 (10)	6 (0)	135 (4)	99 (3)
計	1,991 (100)	1,911 (100)	1,469 (100)	1,289 (100)	3,394 (100)	3,201 (100)

註: 1) () 안은 構成比.

2) Glass Fiber 除外.

3) EC 6個國과 英國.

資料: 化纖協會, 『化纖便覽』, 1978.

의 所得에 대한 彈力性은 衣類用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971~76年 期間中 美國의 非衣類用 纖維消費의 比重은 54.8%에서 56.1%로, 그리고 EC 6個國 및 英國에서는 46.4%에서 49.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非衣類用 纖維需要의 증대는 化學纖維生産增大의 결과이며 동시에 化學纖維의 生産增大를 誘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美國의 纖維需要推移를 보면 産業用 및 家庭用 需要用途가 제한된 綿, 毛 등 天然纖維消費量은 1971~76年 期間中 22%가 감소한 반면 化學纖維消費量은 24%가 증가하였다. 美國 및 西歐에서의 用途別 纖維消費推移는 <表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2. 世界纖維需要展望

美國 및 西獨 등의 纖維機關이 推定한 바에 의하면 今世紀末까지 世界の 纖維需要는 現在 規模에서 약 2倍 규모인 45百萬~52百萬톤으로 증대될 전망이다(表 8 參照). 素材別로는 天然纖維와 「셀룰로오스」 纖維가 自然條件 및 技術的 制限性으로 약간 증대하는 데 반하여

폴리에스터, 나일론 및 아크릴 纖維를 주로 한 合成纖維는 현재의 8百萬톤 規模에서 28百萬~35百萬톤으로 무려 3倍 이상 증가하여 全體纖維需要中 合纖이 차지하는 比重이 현재의 30% 수준에서 60~70% 수준으로 증대할 전망이다.

世界纖維의 약 20%를 消費하고 있는 美國에서는 앞으로 「카페트」 및 室內裝飾用 纖維消費와 自動車內裝用 및 「타이어」 등 自動車用 需要가 크게 증대될 것이 예상되며 특히 현재 80萬톤에 이르고 있는 「카페트」 需要는 1980年代 後盤에는 160萬톤에 이를 것으로 美國纖維界는 전망하고 있다. E. Kodak, Dupont, American Enka 등에서 推定한 美國의 纖維消費展望을 보면 天然纖維와 「레이온」, 「아세테이트」 등의 需要는 減少現象을 보이고 폴리에스터 纖維需要는 工業用 特定分野의 需要增大로 1970年代 後盤에는 年平均 7~8% 증가하고 그 후는 增加率이 半減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나일론 纖維需要는 「카페트」用 需要가 가장 큰 增大要因으로 작용하여 年平均 4~5% 증가하며, 아크릴 纖維는 그 用途가 衣類와 室內裝飾用으로 제한되고 今後

<表 8> 纖維의 素材別 需要展望

(단위 : 1,000%)

素材別	1973~75 (平均)	1975~77 (平均)	1985	1990	2000
天然纖維	14.6	14.4	15.4~18.2	14.0~17.9	13.5~16.3
綿 化	13.1	12.9	13.4~18.2	11.5~14.0	11.5~14.5
羊 毛	1.5	1.5	1.6~ 1.7	1.8~ 2.0	1.8~ 2.0
合成纖維	7.5	8.3	14.1~19.8	15.9~26.4	27.5~35.0
셀룰로오스	3.6	3.1	2.5~ 4.2	2.0~ 3.9	3.2~ 4.0
化學纖維	11.1	11.4	220.0~22.7	19.7~28.6	31.6~38.5
纖維合計	25.7	25.8	26.0~40.2	35.5~44.4	45.4~52.0

註 : 1) 1985~2000의 豫測値는 最高와 最低值임.

2) 1973~77(平均) 生産實績임.

資料 : 日本化纖協會, 調査 資料 No. 281, 1978.

「카페트」 需要는 나일론에 의하여 浸蝕되어 나일론보다 크게 낮은 成長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日本化纖協會, 1978).

西歐諸國은 현재 世界纖維의 16%수준을 消費하고 있는데 美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衣類用 需要의 증대가 예상된다. CIRFS(國際人造纖維類協會)에서는 西歐國家의 生産과 消費에 대한 年次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1980年代初까지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 需要는 3~4% 증가할 것으로 豫測하였다. 그러나 폴리에스터를 위시한 合成纖維의 生産增加는 年平均 1~2% 수준에 머물러 輸出增加率이 격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表 9)에는 地域別·纖維別 纖維消費增加要因이 나타나 있는데 人口增加에 의한 增加分이 약 1/3, 그리고 所得增大에 의한 增加分이

2/3정도로 예상되었고 先進地域에서 所得增大에 의한 需要增加가 開發途上地域보다 월등히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에 서의 보다 빠른 所得增加趨勢와 産業化에 의한 衣類 및 非衣類 消費增加를 勘案할 때 世界市場規模가 예상보다 더욱 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纖維工業의 成長展望

앞에서 觀察한 纖維工業의 生産, 技術 및 市場條件의 변화에 의하여 우리나라 纖維工業 展望은 상당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 纖維工業은 勞動集約製品의 輸出

〈表 9〉 地域別 要因別 纖維需要增加展望

(단위: 百萬 円)

地 域	推 定 機 關	人 口	所 得	計
先 進 地 域	世 銀 (72~85) ¹⁾	—	—	3.8
	W.M.C. (75~90) ²⁾	2.0	7.9	9.9
	W.T.C. (76~90) ³⁾	2.8	6.7	9.6
	A. Enka (76~90) ⁴⁾	1.5	3.5	5.0
中 央 計 劃 地 域	世 銀 (72~85)	—	—	1.9
	W.M.C. (75~90)	1.3	4.5	5.8
	W.T.C. (76~91)	2.0	3.9	5.9
	A. Enka (76~90)	1.4	4.5	4.9
開 發 途 上 地 域	世 銀 (72~85)	—	—	5.5
	W.M.C. (75~90)	2.6	3.7	6.3
	W.T.C. (76~91)	3.6	2.7	6.3
	A. Enka (76~90)	2.9	3.9	6.8
合 計	世 銀 (72~85)	—	—	11.2
	W.M.C. (75~90)	5.9	16.1	22.0
	W.T.C. (76~91)	8.4	13.4	21.8
	A. Enka (76~90)	5.8	11.9	17.7

註: 1) 世界銀行(1975年 1月中)

2) W.M.C.: Werner Management Consultants (75年 10月)

3) W.T.C.: Werner Textile Consultants (76年 10月)

4) A. Enka: American Enka (77年 11月)

資料: 日本化纖協會, 1978.

擴大에 의하여 成長되었기 때문에 完製品分野에서의 國際競爭力下落으로 纖維工業의 전반적인 衰退趨勢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原資材 및 中間材部門에서 非勞動生産要素의 重要性이 증대함에 따라 後發纖維工業國의 競爭力向上이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纖維工業은 施設 및 技術側面에서 投資와 경험이 상당히 蓄積되었기 때문에 短期間에 급격히 斜陽化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原資材, 中間材 및 完製品部門에서의 比較優位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纖維貿易構造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비록 原資材 및 中間材部門의 國際競爭力이 향상된다 할지라도 完製品의 輸出增加率下落은 전반적인 纖維輸出增加趨勢를 鈍化시키게 되어 우리나라 纖維工業이 從前과 같이 輸出主導的 成長을 이루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纖維工業成長은 國內需要伸張에 보다 의존하게 될 것이 예상되며 실제로 과거의 國內需要增大趨勢가 계속될 경우 既存施設은 向後 10年 이내에 國內需要充當에도 부족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國內外需要展望을 통하여 우리나라 纖維工業의 成長能力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1. 國內需要

우리나라의 纖維類消費는 國民生活水準의 향상과 纖維工業의 生産性向上에 따라 최근에 급격히 上昇하였다. 1971~77年 期間동안 纖維類消費量은 14萬 5千톤에서 29萬 9千톤으로 年平均 12.8%, 1人當纖維消費는 4.4kg에서

8.2kg으로 年平均 10.9%의 增加率을 보였다. 向後에도 國民所得의 증가에 따라 衣類用纖維消費增加는 계속되고 長期的으로는 이에 家庭用 및 産業用 纖維需要가 加勢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纖維需要豫測을 위한 有力한 說明變數로는 所得과 纖維製品의 相對價格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長期纖維需要 形態觀察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1人當國民總生産에 대한 1人當纖維消費, 그리고 주로 先進工業國을 포함한 世界 10個國의 1人當國民總生産에 대한 1人當纖維消費의 回歸方程式을 導出하였다.

計測된 纖維需要函數는 다음과 같다.

$$1. \log C_k = -4.767 + 1.054 \log Y_k$$

$$R^2 = 0.950 \quad (t = 12.32)$$

C_k : 우리나라 1人當纖維消費量

Y_k : 우리나라 1人當國民總生産(1975年 不變價格, 원)

標本; 1968~77의 時系列資料(10個)

$$2. \log C_w = -2.218 + .617 \log Y_w$$

$$R^2 = 0.768 \quad (t = 12.61)$$

C_w : 各國의 1人當纖維消費量(kg)

Y_w : 各國의 1人當國民總生産(1970年 不變 달러)

標本; 美國, 오스트리아, 西獨,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日本, 韓國, 뉴질랜드, 이란 등 10個國의 1970~74年 時系列資料(50個)

두 개의 需要函數가 모두 統計的으로 有意성이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所得에 대한 纖維需要의 彈力値는 매우 다르게 計測되었다. 우리나라의 纖維需要의 彈力値가 溫帶地方 10個國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매우

2) 標本期間的 年度別 「크로스섹션」 資料에 의한 回歸分析結果 需要彈力値는 매우 安定性 있게 計測이 되었다 (1970:0.516, 1971:0.561, 1972:0.685, 1973:0.627, 1974:0.570).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短期的으로 價格下落과 供給増大에 의하여 최근에 급격히 上昇한 纖維消費趨勢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1人當國民所得은 1990년까지는 1970年代 初盤의 先進國의 國民所得水準에 接近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長期的으로는 先進國의 纖維需要彈力性이 支配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先進國의 需要函數와 KDI長期經濟社會開發展望에 나타난 所得 및 人口成長指標를 適用하면 우리나라의 1人當纖維需要는 1978年 8.2kg에서 1991년에 16.6kg으로 약 2배 증가하고 總纖維需要는 30萬톤에서 75萬톤으로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推計된다. 이 경우 1990年代에는 우리나라의 1人當纖維消費가 17kg 수준이 되어 1970年代初의 先進國 平均消費水準에 이르게 되는데 예상되는 國民所得 증대와 纖維工業成熟程度를 勘案하면 매우 타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纖維類消費의 素材別 構成을 보면 1976年 天然纖維가 45%, 化學纖維가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世界纖維消費形態와 비교하여 보면 毛의 構成比가 낮고 再生纖維 및 아크릴 纖維의 構成比가 높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消費構造는 初期의 纖維消費 伸張段階에서 高價의 毛製品보다 類似機能의 化學纖維가 選好된 데 基因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世界纖維消費의 化學代替現象에 따라 天然纖維의 비중이 격감하는 반면 毛製品의 消費는 所得水準의 上昇으로 계속 그 비중이 減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家庭用 및 産業用 纖維需要増大와 世界纖維消費形態趨勢에 따라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의 비중이 급격히 上昇할 것

이며 아크릴 纖維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再生 및 半合成纖維는 한정된 用途와 工場 自體가 가지고 있는 公害問題 등으로 世界的으로 需要増大가 없을 것이 전망되며 國內需要도 量産體制의 確立으로 低價供給이 가능하여질 合成纖維 때문에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이다.

2. 輸 出

輸出用 纖維生産比重이 60%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纖維工業展望은 앞으로 輸出展望에 基本的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輸出豫測에 필요한 諸變數의 豫測 및 數量化가 매우 어려워 國內需要豫測과 같이 中·長期의 輸出規模 또는 增加率을 計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計量化된 輸出模型에 의한 輸出需要豫測에는 海外市場需要 競爭國에 대한 우리나라 生産要素價格 및 生産性的 相對的 변화, 市場活動과 기타 國際競爭力에 영향을 주는 經濟的 制度的 要因의 數量化가 필요하나 이것은 극히 어려운 作業이다. 또한 과거에 急進하였던 纖維輸出伸張率이 市場開拓努力과 輸出支援政策에 크게 基因하였음에 비추어 이와 같은 要因에 의한 競爭力減少와 輸出增加率下落을 假定하기가 매우 어렵다.

具體的인 輸出規模 또는 增加率의 豫測이 어려운 반면 世界纖維 市場展望과 우리나라 纖維工業의 成熟段階를 살피 봄으로써 部門別 成長能力의 평가는 가능하다고 하겠다. 世界的 纖維消費展望은 豫測機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主要國際機關과 纖維企業의 豫測結果를 要約하여 平均豫測值를 適用하면 纖維需要는 1980년까지 年平均 5.3%, 1980~85年

期間中 3.4%, 1985~90年期間中 2.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우리나라의 化學工業은 현재 주로 國內原資材供給을 위하여 施設이 擴大되고 있는데 後發纖維工業國의 完製品施設擴大에 의하여 오히려 輸出擴大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의 世界纖維消費增加는 化學纖維部門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競爭力이 低下되지 않는 한 이에 比例하는 높은 輸出增加率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1970~76年 期間동안 世界의 化學纖維消費는 年平均 6.4%의 增加率을 보인 데 대하여 우리나라 纖維原料의 輸出量은 이의 약 3배에 해당하는 年平均 19.4%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世界化學消費에 대한 우리나라 輸出彈力性이 持續될 경우 韓國의 纖維原料輸出은 1970年代에는 年平均 30%이상, 이 후에는 年 10~20%수준의 伸張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世界化學纖維輸出은 日本과 西獨이 主導하고 있어 高度의 資本과 技術水準이 化學工業의 成長에 필요함을 보여준다. 1977年 우리나라의 化學纖維輸出은 3萬톤인 데 대하여 日本과 西獨은 各各 60萬톤과 56萬톤을 輸出하였다. 단순히 이 나라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化學輸出이 世界化學消費增加率의 倍로 증가된다고 假定하면 化學輸出은 1991년에 17萬톤 規模에 달하여 현재 西獨과 日本의 30% 수준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編織 및 織物部門은 그 經濟的 特性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中극적으로 比較優位喪失이 불가피하나 品質 및 生産性向上에 상당한 技術習得期間이 필요함에 비추어 衣類製造業보다는 産業衰退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紡績糸部門은 우리나라에서 勞動 및 機械生産性이 계속 향상되고 있으며 資本 및 技術集約度가 織物 및 衣類部門보다 높아 産業衰退가

〈表 10〉 世界의 長期纖維豫測

(단위: 百萬톤)

	生産實績		1980							平均
	1973~75 平均	1975~77 平均	A	B	C	D	E	F		
天然	14.5	14.4		15.0	14.5	15.0	15.8	13.4	14.6	
化學	11.1	11.4		17.0	15.5	17.1	17.3	18.2	17.1	
計	25.6	25.8	31.3	32.0	30.0	32.1	33.1	31.6	31.7	
構成比 天然	57	56							46	
化學	49	44		53	52	54	52	58	54	

	1985				1990				年平均增加率(%)			
	A	B	E	平均	B	C	F	平均	76~80	80~85	85~90	76~90
天然		15.4	15.8	15.3	15.8	14.5	14.7	15.3	0.3	0.9	0.0	0.4
化學		22.3	22.7	22.1	28.6	26.5	25.9	26.7	10.7	5.3	3.9	6.3
計	36.0	37.7	38.5	37.4	44.4	41.0	40.6	42.0	5.3	3.4	2.3	3.5
構成比 天然				41				35				
化學		59	59	59	65	65	64	65				

註: 예측기관 A: Monte fibre (74. 9) B: 世界銀行(75. 1) C: 日本 리자센타(75) D: BASF (76. 6)
E: A.D. Little (75. 11) F: 日本化學協會(76. 6)

資料: 日本化學協會, 調査資料 No. 281, 『世界의 長期纖維需要展望』

더욱 늦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後進纖維國에서 輸入代替輸出用 施設擴大 및 生産性向上이 推進될 것이 예상되어 漸次的인 輸出增加率減少가 전망된다.

과거의 紡績糸 및 織物輸出增加趨勢를 보면 世界纖維消費의 平均增加率は 1970~76年 동안 3.0%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輸出量은 이의 9배에 해당하는 年平均 27.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資源波動 및 纖維「쿼터」 등에 의하여 輸出環境이 急變한 1973年 이래 77년까지의 年平均增加率は 16.0%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紡績糸 및 織物製造業은 현재 成熟段階에 있다고 평가되나 이 부문의 投資懷妊期間과 中共 등 競爭國에 의한 市場蠶食을 고려하면 향후 5~10年 후에는 輸出의 絶對的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判斷된다.

衣類 등 完製品輸出量은 1970~76年 期間中 年平均 31.3%의 높은 增加率을 보였으며 資源波動 이후 4年間에는 年 12.1%의 비교적 鈍化된 成長率을 보였다. 衣類製造業은 비록 賃金上昇과 纖維輸入規制에 의하여 가장 打撃을 입은 부문이나 최근에도 市場擴大와 輸出伸張趨勢가 계속되고 있어 當분간 輸出量의 絶對的인 下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衣類産業의 斜陽化가 불가피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纖維産業이 主力企業임에 비추어 市場活動에 集中的인 努力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이 부문의 斜陽化를 遲延시키는 要因이 될 것이다.

輸出規模에 대한 구체적인 推計는 없으나 위의 輸出展望에 비추어 長期的으로 輸出增加趨勢는 國內消費增加趨勢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진다. 그러나 輸出構造側面에서 나타나는 特徵, 즉 原料輸出比重增大과

이에 따른 化學纖維素材比重의 증대는 우리나라 化學纖維産業이 本格的인 輸出産業으로 成長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中間材 및 完製品部門에서는 國際競爭力下落으로 國內需要增大에 대한 依存性이 높아질 것이나 아직 그 輸出比重이 絶對的으로 높음에 비추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輸出産業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 전망된다.

V. 結論 및 政策方向

1960年 이래 纖維工業은 우리나라의 代表的인 輸出産業으로 成長하여 왔다. 그동안의 괄목할 成長으로 纖維工業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中樞産業이 되었으며 生産, 輸出 및 施設規模에 있어서 世界에서 屈指의 位置를 점하게 되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纖維工業構造는 종래의 勞動集約的 性格에서 차츰 資本 및 技術集約的 方向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對內外與件 변화가 이와 같은 構造變化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중요한 對外與件變化는 中間製品 및 完製品分野에서의 纖維類輸入規制의 強化, 先進國에서의 施設近代化, 自動化 및 技術開發의 推進, 中共을 위시한 後發纖維工業國의 生産施設 擴大傾向 등을 들 수 있고 對內的으로는 勞動力 부족과 賃金上昇 및 重化學工業政策에 따른 政策的 지원과 企業노력의 감소가 國際競爭力을 弱化하는 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金후의 生産要素 및 市場條件 아래서 勞動集約的 方法에 의한 纖維工業의 量產 및 輸出體制는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워질 것

이 예상되는 것이다.

20世紀 後半의 世界纖維消費構造의 가장 뚜렷한 特徵은 化學纖維에 의한 天然纖維 代替 現象이며 化學纖維의 등장과 非衣類用 纖維需要의 開發에 따라 纖維消費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世界の 유력한 纖維機關들이 推定한 바에 의하면 과거의 纖維消費 增加趨勢가 今世紀末까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低所得國에서는 人口 및 所得 증대로 衣類用 消費가 증가하는 반면 高所得國에서는 産業用 및 家庭用 消費가 크게 증대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70年代末 이후의 世界 纖維消費 증대는 폴리에스터를 위시한 合成 纖維部門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하고 天然纖維 및 再生 半合成纖維 消費는 現水準에 머물거나 약간 증대되리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 纖維工業의 生産 및 市場對策도 이러한 消費構造의 轉換을 감안하여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與件과 전망에 비추어 우리나라 纖維工業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輸出競爭力의 減退와 이에 따른 成長率 및 輸出依存度의 下落이 예상된다. 비록 纖維産業의 전반적인 靑陽化趨勢를 멈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産業特性和 消費展望이 달라지기 때문에 部門別로 國際競爭力의 維持와 強化를 위한 産業合理化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에서의 纖維工業의 生産 및 技術條件 변화와 對外與件 변화의 分析結果에 비추어 向

後 우리나라 纖維産業의 國際競爭力 維持와 強化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主要政策方向으로 提示된다.

첫째, 完製品보다 상대적으로 資本 및 技術 集約적인 化學纖維의 施設과 生産을 확대하여 勞動力 부족과 賃金上昇 壓力에 對備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染色, 加工 등 脆弱部門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纖維生産構造를 改善하고 附加價値를 높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纖維施設에 대한 代替投資를 증가하여 施設을 근대화하고 이를 위하여 最新機械의 導入과 國內開發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老朽施設을 動力化 및 自動化된 機械로 代替함으로써 先進國型的 纖維生産方法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新製品開發을 위한 研究開發投資를 확대하고 生産加工技術을 향상시켜 品質 및 價格面에서 國際競爭力이 培養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後進國과의 價格競爭이 激化될 것이 예상되는 完製品 輸出市場對策으로는 디자인과 패션을 開發하여 輸出單價를 높이고 纖維需要를 능동적으로 創出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向後的 輸出戰略으로는 美國, EC, 日本 등 先進地域에는 高價品販賣에 주력하는 한편 非衣類用 需要 製品의 市場開拓을 촉진하고, 기타 中進 및 後進國에는 糸, 織物 등 中間材輸出의 확대에 주력함이 필요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金榮奉, 『纖維工業의 成長過程과 生産構造』,
韓國開發研究院, 1975.
- 産業銀行, 『産業合理化方向』, 1977.
- 纖維産業研究所, 『纖維工業統計』, 1969~78.
- , 『韓國纖維의 物動分析』, 1978.
- 日本銀行, 『主要企業經營分析』, 1975.
- 日本化纖協會, 調查資料 No.281, 『世界の 長
期纖維需要展望』, 1978.
- 韓國開發研究院,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
91』, 1977.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78.
- 韓國化纖協會, 『化纖便覽』, 1976~78.
- , 『化纖』, 1968~78.
- 海外經濟研究所, 『日·中共友好條約과 長期貿
易協定締結이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影
響과 對策』, 1978.
- , 『韓國·中共間 輸出競爭力 比較分
析에 관한 研究』, 1975.
- Textile Organon, *Textile Organon*, 1976~78.